



희망

어디에 있니?

글: 아만드 도우셋, 엘리사 구에라

삽화: 아나 로구

희망, 어디에 있니?

아동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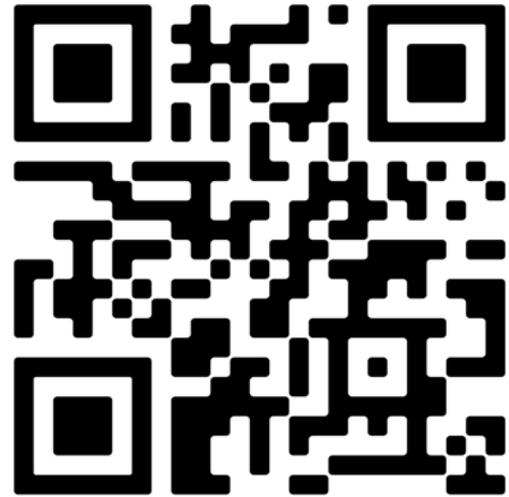
글: 아만드 도우셋 (Armand Doucet), 엘

리사 구에라 (Elisa Guerra)

삽화: 아나 로구 (Ana RoGu)

한국어 번역 : 원소희 (The LEGO Foundation)

“희망, 어디에 있니?”를 지원하기 위한 더욱 다양한 놀이를 통한 학습 (Learning through Play) 자료를 만나 보세요.



www.hopewhereareyou.com

우리는 학교가 문을 닫은 동안 학생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 세계 교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사들이 알고 계시듯,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그간 교육계를 넘어서 많은 이들이 보여준 노력은 상당합니다. 교육현장의 리더, 학부모, 형제자매 및 가족, 사회복지사,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이들이 전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인 아만도 페르시스코에게!

아나, 아만드, 그리고 엘리사

**희망, 어디에
있니?**



물루, 아프리카



나는 학교에서 하던 모든것이 그리워요. 학교에 걸어가는데 두시간까지도요. 나는 내 여동생들이 노는 동안 엄마를 도우며 하루를 보내요. 계속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배고픔을 잊게 만들어줘요. 아빠가 집에 안 계시면 라디오를 통해 수업을 들어요.

오늘 나는 아빠가 나를 학교에 다시 보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언니는 12살에 결혼을 했어요. 나는 이제 11살인데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야 해요.

나는 내 여동생들이 걱정이예요. 나에 대해서도 걱정이고요.



아미나 선생님께서 내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두 남자분과 함께 우리 집을 찾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줄 음식과 함께요. 아마 사람들을 돕는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아요.

엄마는 나와 내 동생들을 데리고 물을 길으러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밖에 있도록 하자. 저분들이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해." 아미나 선생님과 두 남자분은 아빠와 한참이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나는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아빠가 나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다시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여동생들에게 산수를 가르쳐 보겠니?”

나는 동생들에게 숫자의 신기함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너무도 신이 났어요. 아빠와 엄마까지도 참여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행복하고 편안한 기분을 되찾고, 나는 차파티를 먹으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 꿈꿨어요.






니카우,
오세아니아



우리는 지난 주말에 시골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외로워요. 나는 도시와 에너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나는 학교에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수도 없어요. 우리 형 카우리는 부모님이 짐 푸는걸 도와주고 있어요. 나는 물건이 별로 없어서 내 방 정리를 빨리 끝냈어요. 우리는 아빠가 일자리를 찾을수 있는 곳으로 자주 이사를 해요.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물건을 버렸어요. 내 연장 - 나는 이것저것 고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 과 럭비공을 빼고요.

뒷마당에서 내가 보는 것은 구불구불한 언덕이랑 움직이는 상자들 뿐이에요.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내가 아닌것 같아요.



“네 연장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어 볼까?” 카우리 형은 우리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때 가장 행복하다고 믿어요.

형이 옳아요. 나는 상자를 자르고 다시 맞춰서 예전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그리고 펜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을 그려요. 나는 그 사람들이 락다운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요.

나는 오래되고 녹슨 캔을 나의 상자 세상에 올리고 그 위에 세균을 그려 넣어요.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카우리 형이 또 다시 말해요. 형은 내 럭비공을 가지고 왔어요. “세균들에게 뭔가 해보자.” 나는 공을 던져 세균을 때려 눕히기 시작했어요. 마치 힘이 세진것 같아요.



나는 세균을 물리치고 예전에 살던 동네의 친구들을 자유롭게 해 주는 상상을 해요. “아주 멋진걸!” 카우리 형이 말해요. 형은 핸드폰을 꺼내 내가 하고 있는 놀이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내요.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놀고 싶어해요. 우리는 그룹창을 만들고 세균을 가장 잘 물리친 것을 공유해요. 크게 웃으며 나는 말해요. “모두가 이것 해봐야해. 기분이 너무 좋아!”

“친구들이랑 함께 하니 기분이 더 좋은걸.” 카우리 형이 말해요.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나답게 느껴져요. 행복하고 편안한 기분을 되찾고, 나는 비디오를 만들어요. 더 많은 친구들과 예전 같은반 친구들이 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이요.





오빠들은 숙제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어요. 나는 심심하고 지루해요. 컴퓨터로 수업을 따라가 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힘들어요. 친구들과 밖에서 놀수가 없어요. 춤을 추고 싶어요. 피부가 간지러운것 같고 불안해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빨리 달린다면 왠지 시간을 빨리 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쿠, 내가 모두를 또 방해하고 말았어요. "그만 움직여!" 마이키 오빠가 소리쳤어요. "으악, 또 그러지 마!" 피터 오빠가 외쳤어요.

나는 모두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케이트, 잠시만 조용히 책을 읽을래?” 나는 2분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이내 다리가 비비 꼬이기 시작해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거예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요! 나는 얼른 달려가 전화를 받아요. 로빈슨 선생님이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케이트?” 선생님이 물으세요. 나는 몰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요. 눈물이 차올라 나는 속삭여요. “나는 나쁜 아이예요. 가만히 앉아 있을수가 없어요.”

로빈슨 선생님은 학교에서 우리가 기분을 진정시키려고 요가를 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나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 요가를 연습해 보라고 하시며 선생님의 비디오를 엄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일주일 후, 나는 우리 가족에게 로빈슨 선생님의 요가를 알려 주어요. 나무 자세로 요가를 마무리 해요. 나는 나무 자세를 정말 잘 해요. 우리 오빠들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고맙다, 케이트” 엄마가 말씀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껴요. 나는 내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 행복하고 편안한 기분을 되찾은 것은 나를 차별하게 하고 하루종일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요.





보, 아시아



우리 부모님은 모두 의사선생님 이세요. 부모님이 병원에서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모가 나랑 함께 계세요. 이모가 도착하셨을 때, 나는 부모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숨어 버렸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던 실험들이 그리워요. 키팅, 3D 프린팅... 이모는 티비 보는 것만 좋아해요. 나는 내가 부끄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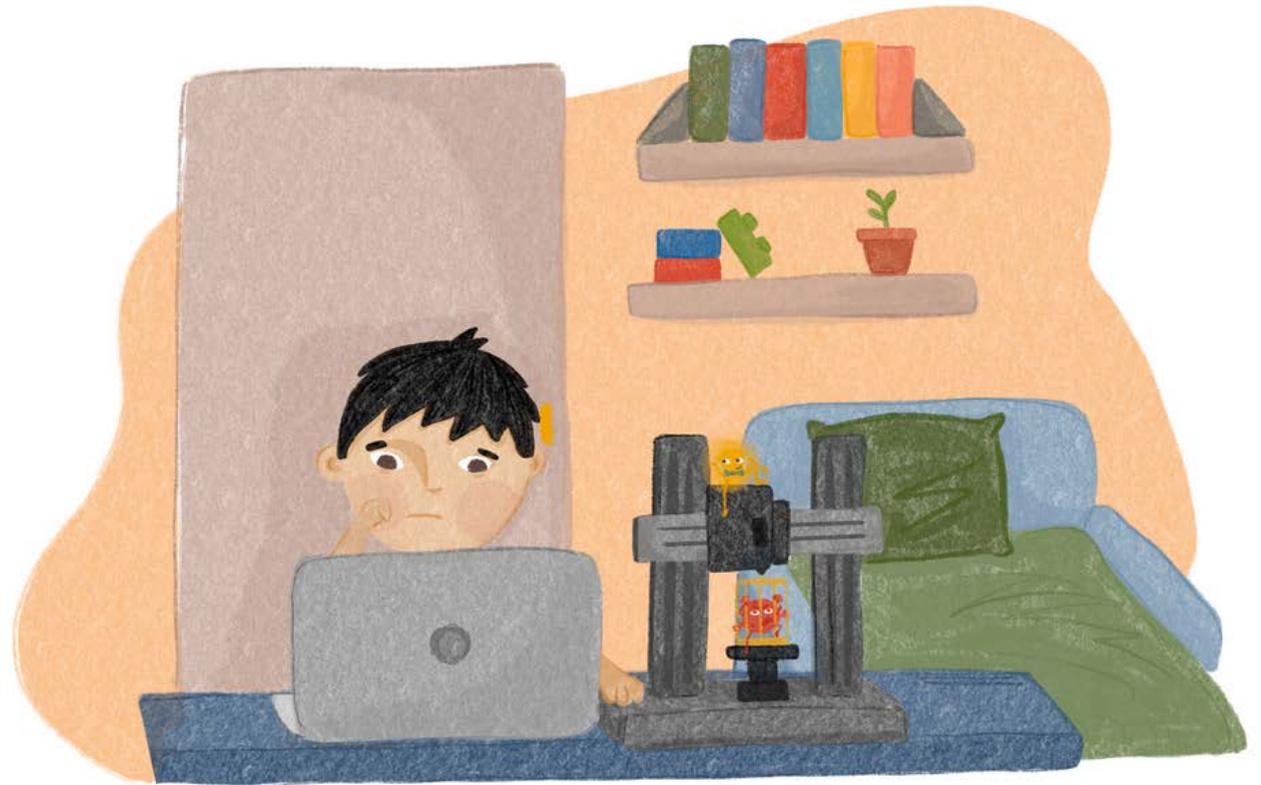
오늘 이모가 부모님과 통화할 때, 나는 부모님 얼굴이 빨갱게 부어오른 것을 눈치챘어요. 부모님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부모님을 도울수 있다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나 과학과 기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천 선생님과 함께 하는 “가상 수업”이 즐거워요. 선생님의 수업은 제 하루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내가 나답게 느껴지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 선생님께서 나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을 때, 나는 무척이나 조용했어요.

내 친구 진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평소의 나라면 무척 신이 났을 테니까요. 수업이 끝난후 진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보, 어떻게 지내?” 나는 내 행동과 부모님에 대한 걱정에 대해 진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너 아직도 3D 프린터 집에 가지고 있어?” 진이 물었어요. “그 프린터를 프로젝트에 사용하는게 어때?”



엄마와 아빠가 전화를 하셨어요. “보, 저 것봐!” 진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진과 내가 함께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로 만든 새로운 헤드피스*를 착용하고 계셨어요.

*헤드피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 간호사들이 머리에 착용하는 의학용 특수 헬멧을 가리킴

아빠가 물으셨어요. “진이랑 함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해 헤드피스를 몇 개 더 만들어볼 수 있겠니?”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엄마 아빠가 기뻐하셨어요.

나는 매우 바빠요. 내가 훨씬 나답게 느껴져요. 행복하고 편안한 기분을 되찾고, 나는 3D 프린터로 더 많은 헤드피스를 만들 준비가 됐어요.





 가비,
라틴 아메리카



우리는 하루종일 집에 있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컴퓨터를 통해 수업을 하셔서 나는 “원격 학습”에 익숙해지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주의가 산만해져요.

니코와 필리페는 내 쌍둥이 남동생들이예요. 아주 많이 울지요. 그건 아빠를 화나게 만들고 그러면 아빠는 엄마에게 소리를 질러요. 나는 그럴때 정말 싫어요. 엄마는 아빠가 사업을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엄마는 “모든 것이 곧 정상으로 돌아갈거야. 그리고 이게 끝나면 우리 모두 괜찮아 질거야.”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노력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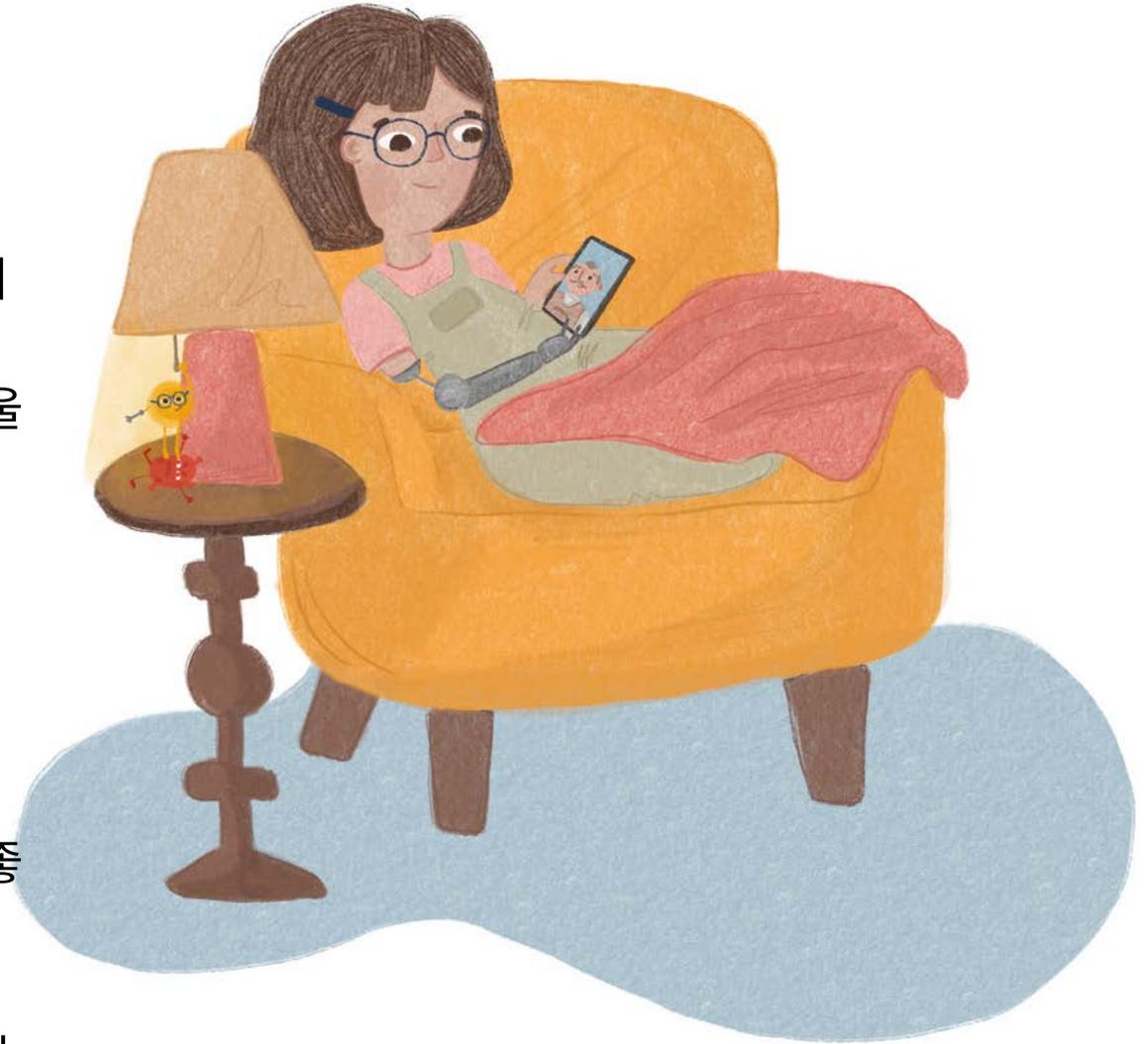
엄마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같지 않아요.



다음날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을 때 나는 걱정이 됐어요. 니코와 필리페가 우는 소리, 아빠가 화내시는 소리를 할아버지께서 전화기 너머로 들으실까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니, 가비?”

나는 말하지 않을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주 싸운다고 말씀드렸어요. 쌍둥이 동생들은 쉬지 않고 울었어요. 나는 아빠와 함께 더이상 과자를 만들지 않아요. 그 냄새가 그리워요. 아빠랑 같이 자카란다 나무 밑을 걸으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 드리고 갓구운 과자를 먹던게 그리워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비,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단다. 학교 숙제를 할때 요즈음 네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를 써 보는 것이 어떨겠니? 내가 글 쓰는 것을 도울테니 너는 그림을 그려보렴.”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 엄마가 말씀 하셨어요. 엄마는 나를 안으며 속삭이셨어요. “아빠랑 엄마는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 구나.”

나는 내 이야기를 부모님께 읽어 드렸고, 엄 마 아빠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아빠는 엄 마에게 몸을 구부리며 말씀하셨어요. “미안 해요”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아 주셨어요. 아 빠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나를 돌아보며 “가 비, 함께 과자를 만들까?” 라고 말씀 하셨어 요.

노래를 부르고 과자를 만들며, 나는 다시 내 가 나답게 느껴졌어요. 행복하고 편안한 기 분을 되찾고, 나는 내 이야기를 선생님과 친 구들에게 들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알레산드로,
유럽



집에서 공부하기 시작한지 2-3주가 지났어요. 선생님께서는 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 내가 책과 바이올린, 다른 물건들을 집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셨어요. 참 어려웠어요. 할머니도 매우 아프시고요.

부모님께서 걱정하고 계신걸 알 수 있어요. 나도 걱정이 되요. 우리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할머니를 방문할 수도 없어요. 나는 너무 슬퍼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게 너무 힘들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나는 너무나 외롭다고 느껴요. 나는 내가 아닌것만 같아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냥 그렇게 말이에요.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요.

옆집에 사시는 로씨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알레산드로, 소식을 들었단다. 정말 유감이구나.” 나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로씨 아주머니가 계속 말씀 하셨어요. “알레산드로, 바이올린 켜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러한 시기에는 음악을 통해 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단다.” 나는 감사하다고 웅얼거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동안 바이올린을 쳐다만 보다가, 나는 마침내 그것을 집어 들었어요. 연주를 시작하자 마음이 놓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어요. 부모님께서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는 할머니께서 언제나 내 음악 듣기를 좋아하셨다고 전해주셨고, 발코니에 나가 하늘을 향해 바이올린을 연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른 저녁, 나는 발코니로 나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다른 이웃들도 밖으로 나와 다른 악기를 연주했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시 나답게 느껴져요. 행복하고 편안한 기분을 되찾고, 나는 할머니께서 내 음악을 들으실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hopewhereareyou.com



hopewhereareyou



hopewhereareyou



hopewhereareyou



hopewhereareyou

아만드 도우셋(공동 집필가)은 다양한 상을 석권한 교육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교사 중의 한명이다. 아만드는 그의 세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하는 훌륭한 글로벌 리더이자 연설가이다.



Armand Doucet

 /armand.doucet.9
 @doucetarmand
 @doucetarmand
 /armanddoucet
 armand.c.doucet@gmail.com
www.armanddoucet.com

엘리사 구에라(공동 집필가)는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최고의 교육가” 라고 불린다(2015년 미주개발은행). 엘리사는 20여권 이상의 학습 서적과 아동 서적을 집필한 작가이며, 유네스코 미래교육 국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Elisa Guerra

 /elisa.guerra.cruz
 @elisaguerracruz
 @elisaguerracruz
 elisaguerra.net
 elisa@elisaguerra.org
www.elisaguerra.info

아나 로구 (일러스트레이터)는 멕시코 TEC de Monterrey에서 애니메이션 및 디지털 아트를 수학중이다. 아나는 로고, 식료품 라벨, 책 표지 등을 디자인하고 있으며, “Around the World”라는 아동 서적의 삽화를 그렸다.



Ana RoGu

 @anarogu
 anaelisarogu@gmail.com